

300억으로 1조 벌어들여...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1년의 기록들

에미상 끝으로 '오징어' 신드롬 일단락 넷플릭스 드라마 중 흥행 압도적 1위

12일(현지 시각) 프라임타임 에미 시상식 6관왕을 끝으로 지난해 9월에 시작돼 약 1년여 간 이어진 '오징어 게임' 신드롬이 일단락됐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가 내놓은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시리즈였다. 단순히 대중적인 인기를 넘어 K-콘텐츠 역사를 다시 쓴 작품이었고, 영어가 아닌 언어로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세계 콘텐츠 업계 판도를 바꾼 드라마이기도 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가 내놓은 모든 작품을 통틀어 시청자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다. 넷플릭스가 공식 집계한 '공개 이후 28일 간 시청 시간'을 보면 '오징어 게임'은 영화·드라마를 통틀어 16억5045만 시간으로 역대 1위에 올랐다. 2위는 '기묘한 이야기' 시즌4의 13억5209만 시간이다. 온라인스트리밍플랫폼 통계 사이트인 플릭스패트롤(FlixPatrol)에 따르면, 지난해 '오징어 게임'은 53일 간 전 세계 넷플릭스 순위 1위를 달렸다. 이 역시 역대 최장 시간 기록이다. 2위는 '기묘한 이야기' 시즌4로 44일이다.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HBO 역대 최고 인

기작인 '왕좌의 게임'과 비견될 정도였다. 지난해 11월 미국 영상 콘텐츠 분석 업체 보빌(Vobile)은 유튜브 내 '오징어 게임' 관련 영상 조회수가 '왕좌의 게임' 관련 영상 조회수를 넘어섰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오징어 게임' 관련 영상 약 12만 9000개는 조회수 170억회를 넘겼다. 이는 '왕좌의 게임'의 169억회를 넘어선 수치였다. '왕좌의 게임'이 8개 시즌을 내보내며 10년 간 쌓아올린 기록을 '오징어 게임'이 8주 만에 추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인정받았다. 현지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왕좌의 게임'이 팬을 모으기 위해 10년이 걸린 것에 비해 '오징어 게임'은 약 8주 만에 스트리밍 차트를 석권했고, 유튜브마저 점령했다"고 했다. 낱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이었다.

'오징어 게임'은 역대 최고 효율을 보여준 작품이기도 했다. 이 드라마의 제작비는 약 2140만 달러로 알려졌다. 현재 달러 가치로 보면 300억원이다. 국내 작품 기준으로 보면 물론 적지 않은 액수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작품과 비교하면 저예산 작품이

된다. 넷플릭스 시청 시간 2위인 '기묘한 이야기' 시즌4의 회당 제작비는 약 1000만 달러로 전해진다. 말하자면 '기묘한 이야기' 2회 분량을 만들 돈으로 '오징어 게임' 9부작이 완성됐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오징어 게임'이 2140만 달러로 9억 달러 효과를 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오징어 게임'은 언어 장벽을 넘어 K-콘텐츠를 글로벌 대세로 이끈 작품이기도 했다. 2020년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을 석권하고, 배우 윤여정이 이듬해 같은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오징어 게임'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K-콘텐츠는 전 세계적인 대세로 떠올랐다. '오징어 게임' 이후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한국 드라마 2편인 '지옥'과 '지금 우리 학교는'는 전 세계 넷플릭스 순위 1위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줬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방탄소년단부터 '오징어 게임'까지 한류를 만들어낸 콘텐츠의 힘에 관한 분석 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오징어 게임'은 시상식 관련 모든 기록을 새로 쓰며 역사가 됐다. 우선 영어가 아닌 언어로 만들어진 드라마가 미국 시상식 후보에 오른 것 자체가 모두 최초였다. TV 관련 가장 큰 시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골든글로브와 에미에서 수상에 성공하기도 했다. 미국 외 지역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상을 받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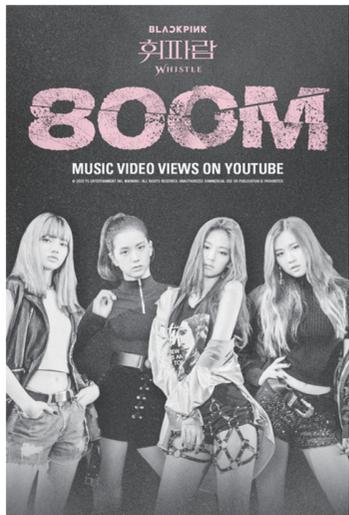
것도, 아시아 국제 배우가 연기상을 받은 것도 처음이었다.

미국 영화계 최대 행사인 아카데미 시상식과 TV쇼 업계 최대 행사인 에미 시상식에서 모두 감동상을 받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 또한 '오징어 게임'이 영어가 아닌 언

어로 만들어진 작품 최초로 미국 TV쇼 시상식 장벽을 무너뜨렸기에 가능한 기록이었다. '오징어 게임'이 있었기에 앞으로 비영어 드라마도 미국에서 영어로 만들어진 작품과 경쟁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연예 매체 할리우드리포터는 "'오징어 게임'은 미국 드라마 시리즈 역사를 새로 썼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블랙핑크 '휘파람'도 넘겼다... 8번째 8억뷰



YG는 "글로벌 음악 팬들의 꾸준한 사랑과 더불어 블랙핑크의 새 앨범을 향한 남다른 기대가 반영된 기록"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유튜브에서 8억뷰 이상 영상을 총 8편 보유하게 됐다. 앞서 '뚜두뚜두'(DDU-DU DDU-DU)(19억뷰),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16억뷰), '붐바야'(14억뷰), '마지막처럼'(12억뷰), '하우 유 라이트 댓(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11억뷰)와 안무영상(11억뷰), 멤버 제니 솔로곡 '솔로(SOLO)'(8억뷰)가 같은 조회수를 달성했다.

'휘파람'은 블랙핑크의 데뷔 싱글 '스퀘어 원(SQUARE ONE)'의 더블 타이틀 곡 중 하나다. 뮤직비디오는 화려한 색감의 세련된 영상미로 주목받았다. 음원 역시 신인으로서는 이례적인 성과를 보였다. 발매 직후 주요 음원 사이트 실시간, 일간, 주간 차트 정상을 휩쓸었다. 해외 14개국 아이튠즈 1위를 차지했다.

'유튜브 킬' 블랙핑크의 신기록 행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5일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8000만 명을 돌파하며 전 세계 모든 아티스트를 통틀어 최고 숫자를 기록했다. 현재 구독자 수는 계속 증가해 8060만 명 이상이다. 동영상 누적 조회수는 262억 회를 넘어섰다.

한편 블랙핑크는 오는 16일 오후 1시(한국 시간) 정규 2집 '본 핑크'를 발매한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만든 곡이 아니라는 극찬을 받은 이탈리아 작곡가 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의 역사 '라 캄파넬라(La Campanella)'를 샘플링한 곡으로 트렌디한 힙합 비트가 더해졌다.

YG는 "글로벌 음악 팬들의 꾸준한 사랑과 더불어 블랙핑크의 새 앨범을 향한 남다른 기대가 반영된 기록"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유튜브에서 8억뷰 이상 영상을 총 8편 보유하게 됐다. 앞서 '뚜두뚜두'(DDU-DU DDU-DU)(19억뷰),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16억뷰), '붐바야'(14억뷰), '마지막처럼'(12억뷰), '하우 유 라이트 댓(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11억뷰)와 안무영상(11억뷰), 멤버 제니 솔로곡 '솔로(SOLO)'(8억뷰)가 같은 조회수를 달성했다.

'휘파람'은 블랙핑크의 데뷔 싱글 '스퀘어 원(SQUARE ONE)'의 더블 타이틀 곡 중 하나다. 뮤직비디오는 화려한 색감의 세련된 영상미로 주목받았다. 음원 역시 신인으로서는 이례적인 성과를 보였다. 발매 직후 주요 음원 사이트 실시간, 일간, 주간 차트 정상을 휩쓸었다. 해외 14개국 아이튠즈 1위를 차지했다.

'유튜브 킬' 블랙핑크의 신기록 행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5일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8000만 명을 돌파하며 전 세계 모든 아티스트를 통틀어 최고 숫자를 기록했다. 현재 구독자 수는 계속 증가해 8060만 명 이상이다. 동영상 누적 조회수는 262억 회를 넘어섰다.

한편 블랙핑크는 오는 16일 오후 1시(한국 시간) 정규 2집 '본 핑크'를 발매한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만든 곡이 아니라는 극찬을 받은 이탈리아 작곡가 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의 역사 '라 캄파넬라(La Campanella)'를 샘플링한 곡으로 트렌디한 힙합 비트가 더해졌다.

유럽3개국에 '아침이슬' 알린다

박학기·이은미·박승화(유리상자)·정동하·알리·함춘호가 벨기에·프랑스·독일을 찾아 작곡가 김민기의 '아침이슬'을 알린다.

13일 주벨기에유럽연합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오는 14일(현지시간) 브뤼셀의 유명 콘서트장인 라 마들렌느에서 한국 대중음악을 현지에게 소개하는 대형 콘서트가 펼쳐진다.

지난해 발매된 '아침이슬 50주년 헌정' 프로젝트 공연·앨범에 참여한 6명의 가수가 아침이슬 등 작곡가 김민기의 대표곡들과 함께 자신의 히트곡들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전 세계적인 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K-팝의 역사와 가치를 제대로 알려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으며, 벨기에·프랑스·독일 등 3개국 한국문화원, 경기문화재단이 함께 한다.

3개국 문화원과 경기문화재단은 이 공연을



위해 지난 6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4일 벨기에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6일에는 파리에서, 18일 독일 베를린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글리치' 전여빈·나나 "외계인에 납치된 남친 행방 쫓는다"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시리즈 '글리치'의 티저 포스터와 티저 예고편을 13일 공개했다.

'글리치'(극본 진한세, 연출 노덕)는 외계인이 보이는 지효(전여빈 분)와 외계인을 추적해온 보라(나나 분)가 흔적 없이 사라진 지효 남친의 행방을 쫓으며 '미확인' 미스터리의 실체에 다가서게 되는 4차원 그 이상의 추적극이다.

넷플릭스, 다음달 7일 공개

공개된 티저 포스터는 기현상을 쫓는 외계인 목적자 홍지효(전여빈 분)와 외계인 팔로워 허보라(나나 분)의 진지한 얼굴 표정이 담겨있다.

"나 또 보여, 그거" "너는 그거 믿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주고받는 두 사람은 평상시엔 누구보다 평범해 보이지만 남몰래 비밀을 품고 있는 전여빈과 소신 하나로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스트리머의 개성을 발산하는 나나의 이색 케미스트리를 기대하게 한다. 또한 홍지효가 내린 외계인 패지와 허보라가 든 기묘한 기기가 이들의 모험에 어떤 의미인지, 어떤 활약을 펼칠지 궁금증을 자극한다.

'글리치'는 집과 회사만 오가며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던 인물이 남친친구가 지구에서 사라졌다는 믿기 힘든 의심을 품으며 일상의

시스템에 오류를 일으키는 모험은 진한세 작가의 상상력에서 탄생했다.

노덕 감독은 "본격 SF라기보다는 이들의 모험을 따라가고 캐릭터에 동화하면서 응원하게 되는 서사가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진 작가는 "전여빈 캐릭터는 가장 평범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이라고 소개했다. 전여빈은 조금씩 바뀌는 헤어 스타일부터 안경을 쓰고 벗는 타이밍까지 세밀하게 계산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변화되어 어느 순간 완전히 달라지는" 지효의 캐릭터를 완성했다.

또 노덕 감독은 나나 캐릭터에 대해 "작품 안에서 가장 자기 확신이 강한 캐릭터"라며 "보라는 소중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고민하지 않고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10월 7일 공개.

엘리자베스 2세 다룬 '더 크라운', 서거 후 관심 ↑ ...전 세계 2위

고인의 생애 담은 작품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사망한 가운데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크라운'이 반사이익을 얻었다. '더 크라운'은 영국의 최장기 집권한 군주였던 엘리자베스 2세의 생애를 담은 작품이다.

12일(현지시간) 해외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통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FlixPatrol)'에 따르면, '더 크라운'이 TV쇼 부문 2위를 차지했다.

'더 크라운'은 현재 시즌 4까지 넷플릭스에 공개됐다. 지난 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한 뒤 '더 크라운' 측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당분간 제작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시리즈는 시즌 6으로 마무리된다.

엘리자베스 2세의 사망 후, '더 크라운'은 10일부터 넷플릭스가 공개되는 대부분의 나라에

서 순위권에 포함됐다. 이후 전세계 순위가 꾸준한 상승했다.

이 외에도 엘리자베스 2세를 담은 작품으로는 그의 아버지 조지 6세가 말을 더듬는 버릇을 고치는 과정을 담은 작품 '킹스 스피치'와 전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은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 사후 엘리자베스 2세의 고뇌를 담은 작품 '더 킨' 등이 있다.

한편, 엘리자베스 2세는 세계 2차 전쟁에서 직접 전장을 돌아다니는 등 활약을 했으며 1952년 2월 영국 왕위에 즉위해 영국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영국 왕실의 존폐 논란을 잠재웠다.

그러나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및 카리브 지역의 국가들은 이에 대한 추모 거부는 물론, 제국주의의 사망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와 함께 그의 후계로 즉위한 첫째 아들 찰스 3세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가 크다. 73세의



나이가 최고령 즉위를 한 그는 윌리엄 왕세자와 해리 왕자를 낳은 전 부인 다이애나 스폰서와의 결혼 전부터 불륜을 저질렀다. 결국 다이애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라도 지목되며 대중적 인기가 낮다.

그가 최근 대관식에서 짜증을 내는 모습이 TV화면에 잡히며 왕실 유지에 대한 회의론이 계속 불거지기도 했다.

원조 육아예능 7년만 부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SBS TV 예능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2005~2015)가 돌아온다.

13일 SBS플러스에 따르면, 다음 달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리턴즈'를 선보인다. SBS에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제작진이 의기투합한다. '찾아가는 육아 코칭 프로그램'이 콘셉트

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진정성있는 해결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SBS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출연 신청을 받고 있다. LG U+ 키즈 플랫폼 서비스 'U+아이들 나라'와 공동제작,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이다.